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종단적 접근

이 지 연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초기 정서조절과 공감의 발달을 예측하는 아동의 발달 영역들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6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발달을 측정하였으며, 5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및 공감능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3세 때 아동의 언어능력은 5세 때 정서조절을 그리고 3세 때 자조능력은 5세 때 공감능력을 예측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정서발달에 다른 영향을 주었다. 3세 때 어머니의 무관심이 그리고 5세 때 어머니의 애정과 통제와 5세 때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발달 특성들 간 상호관련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이는 장단기적인 차이와 관련해 논의되었다.

주요어: 정서조절, 공감, 양육태도, 언어, 자조

정서조절과 공감은 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 정서조절을 잘 하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내면화 문제 행동이나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적다(Denham, Blair, DeMulder, Levitas, Sawyer, & Auerbach-Major, 2003; 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 Reiser, 2001; Granziano, Reavis, Keane, & Calkins, 2007). 반면에,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이 낮으면

많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적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공포에 대한 조절 능력이 낮으면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Rydell, Berlin, & Bohlin, 2003).

정서조절이 주로 자신의 정서와 관련된 행동이라면, 공감은 타인의 정서에 대한 반응이다. 공감은 특히 도덕성(Hoffman, 2001), 이타행동(전병성, 2002; Eisenberg & Fabes, 1991), 친사회적 행동

* 이 논문은 2005년도 연구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5-005-J09052).
* 교신저자: 곽금주, E-mail: kjkwak@snu.ac.kr

(홍화진, 1986; Eisenberg & Fabes, 1991), 또래수용(이성진, 2004)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서에 대한 조절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조절발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 혹은 부적응 문제들과 관련된다.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거나 정서표현에서 부정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또래 문제, 그리고 이후 정신병리적 문제들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Calkins, Gill, Johnson, & Smith, 1999; Eisenberg et al., 2001; Keenan, 2000). 반대로 정서조절을 더 잘하면 학업(Gumora & Arsenio, 2002; Howse, Calkins, Ansstopoulos, Keane, & Shelton, 2003)이나 사회적 기술이 더 뛰어나다(Keane & Calkins, 2004). 다시 말하면, 정서의 부정성과 불안정성은 부적응적 특성을 반영하고 정서조절은 적응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독립적인 차원으로 작용한다(Shields & Cicchetti, 1997).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이해하려면 정서 표현에서 부정성과 정서조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서조절은 생의 초기에 시작된다(Kopp, 1989). 초기 정서조절은 발달의 총체적(holistic)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각-인지-운동 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Kopp, 1989). 생후 1세 이전에 이미 울음이나 미소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혹은 주변의 물건(예, 장난감)을 조작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 이후 2-6세가 되면 아동들은 무서운 사건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불쾌한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 유쾌한 생각을

하거나, 보다 만족스런 방식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을 재해석함으로써 불쾌한 정서적 각성에 점차 더 잘 대처하게 된다(Thompson, 1994). 특히 4-6세 아동들은 외현과 실제 간을 구분(Friend & Davis, 1993; Saarni, 1979)하고 정서통제 목적에 대한 이해(Gnepp & Hess, 1986)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서(Harris & Gross, 1988),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출하는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공감발달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Baron-Cohen & Wheelwright, 2004). 공감은 누군가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게 하고,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들의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 공감은 우리가 타인을 돕고 타인을 해치는 것을 막아주는 세상의 접착제(glue)이다(Baron-Cohen & Wheelwright, 2004).

공감능력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신생아들도 다른 신생아의 고통스런 울음에 대한 반응으로 울거나, 혹은 18개월 영아도 도움행동을 동반한 공감적 반응을 보였다(Thompson, 1987). 이후 아동초기에는 타인의 슬픔이나 분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이 시기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은 섬세한 정서들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슬피 보이는 남아를 묘사한 책을 보면 ‘그는 슬퍼. 그의 아빠가 집에 오면 그는 행복할 거야’라고 말한다. 또한 이 시기에 발달하는 ‘마음이론’은 정서조절 뿐 아니라 공감의 기초가 된다. 아동들은 동일한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감정들을 유발할 수 있음을 깨닫

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서 느낄 감정들을 판단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소망(desire)을 고려할 수 있다(Harris, Johnson, Hutton, Andrews, & Cooks, 1989).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표현을 통제할 수 있으며, 표출된 정서를 반드시 느낀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조차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Astington & Gopnik, 1991).

정서발달의 상호관련성

발달은 총체적(holistic)인 특성과 개별적인(modular)인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총체적 관점에 따르면, 발달의 모든 영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다른 영역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떤 영역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이와 더불어 각 영역은 다른 영역들과 독립적인 하나의 모듈(module)로서도 발달이 진행된다(Shaffer & Kipp, 2007). 따라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고유한 발달 뿐 아니라 다른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Kopp(1989)은 정서조절은 다른 모든 발달적 변화를 반영(mirror)한다고 하였다. 즉 인지적 변화와 신체운동적 변화는 정서조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울음과 어머니의 등장, 그에 따른 위로 간의 연합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타인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물건을 조작하는 것을 통한 즐거움은 자신의 불쾌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 영역의 발달은 다른 영역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발달

언어와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어와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서단어와 정서이해에 관한 연구들(Ridgeway, Waters, & Kuczaj, 1985; Saarni, 1999)에서 2-4세 어린 아동들도 정서 단어를 사용하며 이 기간 동안 단어의 수가 상당히 증가한다. 아동이 정서 단어를 습득했다는 것은 단지 단어를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정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배웠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정서 단어를 많이 아는 아동은 정서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ughes & Dunn, 1998). 또한 정서 이해와 정서조절은 서로 관련이 있었다(Eisenberg, Sadovsky, & Spinrad, 2005). 정서어휘와 정서이해간의 관계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을 토대로 언어와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일반 언어능력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이다(Kopp, 1989). Kopp(1989)은 언어기술은 아동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제안했다. 어린 아동들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사용한다. 특히,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혹은 정서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 배우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학령전기 아동들의 언어기술은 정서조절 책략 중 하나인 좌절 상황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다(Stansbury & Zimmermann, 1999). 덧붙여, 언어 손상은 남아들이 정서조절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Fujiki, Brinton, & Clarke, 2002). 정서조절과 언어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조절을 더 잘하는 아동은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들로부터 더 복잡한 언어를 끌어내기 때문에 해석되었다. 예를 들면, 성인들은 조절을 잘 하는 아동

이 더 주목을 잘 하고 언어기술에서 향상되었다고 지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언어와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같은 연령에서 측정된 상관연구로서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단적 설계는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체운동발달

아동의 초기 발달에서 신체운동 발달 자체는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운동발달과 인지, 언어, 사회 발달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Piaget(1953)가 제안한 감각운동적 지능이다. 그러나 운동발달과 다른 영역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최근이다. Bushnell과 Boudreau(1993)은 운동발달은 지각적 혹은 인지적 능력과 같은 발달적 기능의 습득이나 연습을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자세와 인지발달(Wijnroks & van Veldhoven, 2003), 초기 대근육 운동과 작용기억 및 처리속도(Piek, Dawson, Smith, & Gasson, 2008), 손가락 사용과 언어(Fenson, Dale, Reznick, Bates, Thal, & Pethick, 1994), 운동 협응과 단순 언어장애(Hill, 2001)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인지능력은 대근육 운동 능력과 언어능력이 소근육 운동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운동발달이 인지나 언어 뿐 아니라 정서와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정서의 구현(embodiment)에 관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연필 물기(Strack, Martin, & Stepper, 1988), 몸을 똑바로 펴거나 구부린 자세(Stepper & Strack, 1993), 밀고 당기는 동작(Duckworth, Bargh, Garcia, & Chaiken, 2002), 그리고 고개 끄덕이기(Tom, Pettersen, Lau, Burton, & Cook, 1991)와 같은 동작들이 정서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특정 정서와 연합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타인의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거나 관찰하는 것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Niedenthal, 2007). 이런 정서 구현 연구들이 시사하는 것은 신체적인 동작을 통해 특정 정서를 경험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동능력은 정서조절과 관련되는데, 예를 들면 이동하는 능력의 발달은 스스로 어떤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해 준다(Kopp, 1989). 또한 나이가 들면서, 뛰거나 달리는 것과 같은 이동 능력의 발달은 어머니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동과 어머니 간의 긴장을 유발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의 좌절을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신체운동발달은 정서조절이나 공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정서발달이 언어나 신체운동 발달과 관련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발달적 측면에서 이것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발달적 관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한 영역의 발달이 이후 다른 영역의 발달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세 아동의 언어와 신체운동발달이 이후 5세의 정서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조절 및 공감

아동의 정서발달에서 또 다른 중요한 기여 요인은 부모와 관련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생의 초기에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은

통해 형성된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가 보이는 태도와 행동은 아동이 학습하는 대상이 된다(Bandura, 1977). 만일 부모가 아동의 고통이나 슬픔을 무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습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해 알아채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정서조절이란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Campos, Mumme, Kermoian, & Campos, 1994; Thompson, 1994). 이런 정의에 따르면, 정서조절이란 주어진 사회적 맥락 내에서 적응하기 위해 정서표현과 정서적 각성 모두를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aarni, 1999). 따라서 정서조절 기술은 부모-자녀 관계 내에서 처음으로 발달하는 듯하다(Malatesta & Haviland, 1982). 전형적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정서조절을 사회화하는 것과 같이, 비전형적인 사회화 실제(practices)에 노출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각성되는 상황에 대해 비전형적인 반응을 가르치거나(Cicchetti & Toth, 1995), 혹은 정서적 각성을 관리하는 방식을 배울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서 아동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어머니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Calkins, Smith, Gill, & Johnson, 1998; Shipman & Zeman, 2001). Calkins 등(1998)은 어머니의 부정적 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을 저해하지만, 긍정적 행동은 정서조절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행동이나 태도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독립차원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양육행동은 어린 아동의 공감적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Zahn-Waxler, Radke-Yarrow, & King, 1979). 어머니와 아동 간의 조율된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를 공유하고 아동에게서 공명적(resonant) 정서 각성을 촉진하게 되고, 이것은 이후 타인지향적 공감반응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Thompson, 1987). 또한 공감을 설명하는 생리학적 기초로 자주 언급되는 거울뉴런도 사회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auer(2005)는 공감에서 거울뉴런은 유전자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장비일 뿐이며, 이것은 개인적·사회적 환경이 아동에게 제공하는 관계를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동이 맺는 초기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Barnett, King, Howard, & Dino, 1980).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정서조절과 공감 발달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런 관련성을 확장하여, 정서발달에 미치는 양육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지속되며, 그 관계가 유지되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적으로 실시되는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단기적 혹은 즉시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3세 때의 환경과 발달

본 연구는 3세 때의 환경과 아동발달이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Caspi, Harrington, Milne, Amell, Theodore와 Moffitt(2003; Caspi & Silva, 1995)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3세의 행동적 특성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성격을 예측하였다. Brooks-Gunn과 Duncan(1997)과 Hart와 Risley(1995)는 4세 이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Brook-Gunn과

Duncan(1997)은 4세 이전의 경험은 가족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정환경의 차이는 아동의 발달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3세 때의 환경과 아동의 특성은 이후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초기 정서조절과 공감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으로, 2가지의 하위 목표가 있다. 하나는 아동초기 발달 영역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아동의 3세 때 사회적, 언어적, 운동적 발달의 특성이 5세 때 정서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둘째,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3세 때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5세 때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 아동들은 한국연구재단의 2005년 중점 연구과제인 [빈곤이 취약한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들 중 일부였다. 3세와 5세에 모두 참여한 아동 16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남아가 81명(49%)이고 여아가 85명(51%)이었다. 5세를 기준으로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는 38세이고 어머니는 35세였다. 아버지의 25%가 고졸, 18%가 전문대졸, 39%가 대졸이었으며, 어머니의 25%가 고졸, 21%가 전문대졸, 43%가 대졸이었다. 가계수입은 평균 382만원(SD=257.40)이었다.

측정도구

3세와 5세 때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PARQ)

어머니의 양육 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Rohner(2005)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온정/애정(.80), 공격성/적대감(.65), 무시/무관심(.52), 거부(.49), 그리고 통제(.56)의 5개 요인에 대해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9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63이었다.

3세 때 측정된 아동발달. 아동발달(K-CDI 아동발달검사)

아동의 발달적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Ireton(1992)이 개발하였고 김정미, 신희선(2006a)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K-CDI아동발달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8개 척도 중에서 사회성(.82), 자조행동(.83), 운동발달(대근육(.84), 소근육(.80)), 언어발달(표현언어(.80), 언어이해(.79))을 사용하였다. 김정미, 신희선(2006b)의 표준화 연구결과,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계수는 .95였다.

5세 때 측정된 아동의 정서발달.

① 정서조절. Shields와 Cicchetti(1997)의 정서조절체크리스트(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사용하였다. 24문항이며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ERC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은 적응적 조절에 대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유연성, 평정성, 맥락적 적절성을 측정하며, 부정성(negativity)은 기분의 변화, 화난 반응, 정서의 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24문항에 대한 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23번 문항을 제외하고,

정서조절 14문항과 부정적 정서 9문항을 확인하였다. 정서조절의 신뢰도 계수는 .84이고 부정적 정서의 신뢰도 계수는 .72이었다.

② **공감**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한 공감지수척도(Empathy Quotient, EQ)의 아동용(EQ-C, Chapman, Baron-Cohen, Auyeung, Knickmeyer, Taylor, & Hackett, 2006)을 사용하였다.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는 이 척도를 타인의 정서상태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하였다. 그들은 이 두 가지 하위 요인은 서로 다르지만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체 문항에 대한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27문항이며 4점 척도였다. 긍정 반응(‘그렇다’)은 정도에 따라 2점과 1점으로 그리고 부정 반응(‘그렇지 않다’)은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0점으로 처리되어 27문항이 합산되었으며 최대 점수는 54점이다. 신뢰도 계수는 .82이었다.

절차

아동의 발달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2006년 8-10월(3세)에 1차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2008년 6-9월(5세)에 아동의 정서조절 및 공감,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해, 3세와 5세 때 각 아동의 가정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3, 5세), 양육태도(3, 5세), 아동발달(3세), 정서조절(5세), 공감(5세)을 측정하는 체크리스트들로 구성된 설문지가 각 가정으로 발송되었다.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결 과

1. 3세 발달과 5세 정서

정서발달의 안정성과 발달 영역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세 때 6가지 발달적 특성과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3세 때 사회성과 자조, 표현 언어와 언어이해는 5세 때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성, $r=.250, p<.01$, 자조, $r=.156, p<.05$, 표현 언어, $r=.278, p<.01$, 언어이해, $r=.232, p<.01$. 또한 유사한 관련성이 공감에서도 확인되었다, 사회성, $r=.191, p<.05$, 자조, $r=.244, p<.01$, 표현 언어, $r=.229, p<.01$, 언어이해, $r=.163, p<.05$.

3세의 발달이 5세 때 정서조절과 공感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세 때 발달의 3영역의 6가

표 1. 3세 발달과 5세 정서조절, 공감 간 상관($n=166$)

	5세 ERC		5세 EQ
	부정성	정서조절	
3세 K-CDI			
사회성	-.081	.250**	.191*
자조	-.029	.156*	.244**
대근육	-.129	.106	.147
소근육	-.053	.103	.080
표현언어	-.076	.278**	.229**
언어이해	-.039	.232**	.163*

** $p<.01$, * $p<.05$

표 2. 3세 아동발달과 5세의 정서조절, 공감 간 단계적 회귀분석

	R^2	β	t
ERC 정서조절			
표현언어	.077	.278	3.701***
EQ			
자조	.052	.229	2.853**

*** $p<.001$, ** $p<.01$

지 변인들인 사회성, 자조, 소근육, 대근육, 표현언어, 언어이해를 예측변인으로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을 종속변인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3세 때 표현 언어가 5세 때 정서조절의 예측변인이었다, $F(1, 164)=13.697, p<.001, R^2=.077$. 그리고 3세 때 자조행동은 5세 때 공감의 예측변인이었다, $F(1, 147)=8.140, p<.05, R^2=.052$.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발달

1) 어머니 양육 태도의 장기적 영향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5세 때 아동의 정서조절에서 부정성과 정서조절, 그리고 공감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부정성, $r=.216, p<.01$, 정서조절, $r=-.167, p<.05$, 공감, $r=-.207, p<.05$.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육태도 중에서 적대, 무관심, 거부는 부정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적대, $r=.155, p<.05$, 무관심, $r=.160$,

$p<.05$, 거부, $r=.193, p<.05$,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무관심이다, $r=-.168, p<.05$. 또한 5세의 공감은 적대감, 무관심, 거부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적대감, $r=-.172, p<.05$, 무관심, $r=-.186, p<.05$, 거부, $r=-.190, p<.05$, 이것은 부정성과 방향성은 반대이지만 같은 양상이었다.

3세 때 양육태도가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5가지, 즉 애정, 적대감, 무시, 거부, 통제를 예언변인으로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무관심 변인만이 5세 때 아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부정성, $F(1, 151)=5.571, p<.05, R^2=.036$, 정서조절, $F(1, 151)=5.159, p<.05, R^2=.033$. 둘째, 3세 양육태도 중 무관심 변인만이 5세 때 공감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F(1, 135)=5.058, p<.05, R^2=.036$. 이 결과는 어머니의 무관심은 아동의 정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어머니 양육태도의 단기적 영향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

표 3. 3세 양육태도와 5세 정서조절, 공감간의 상관

	5세 ERC		5세 EQ
	부정성	정서조절	
3세 PARQ			
애정	-.142	.137	.158
적대	.155*	-.152	-.172*
무관심	.160*	-.168*	-.186*
거부	.193*	-.098	-.190*
통제	.129	.004	-.005
총점	.216**	-.167*	-.207*

* $p<.05$

표 4. 3세 양육태도와 5세의 정서조절, 공감 간 단계적 회귀분석

	R^2	β	t
ERC 부정성			
무관심	.036	.189	2.360*
ERC 정서조절			
무관심	.033	-.182	-2.271*
EQ			
무관심	.036	-.190	-2.249*

* $p<.05$

표 5. 5세 양육태도, 정서조절, 공감 간 상관

	5세 ERC		5세
	부정성	정서조절	EQ
5세 PARQ			
애정	-.375**	.386**	.371**
적대	.311**	-.195*	-.253**
무관심	.308**	-.314**	-.319**
거부	.307**	-.122	-.171*
통제	.186*	-.172*	-.198*
총점	.315**	-.221**	-.264**

** $p < .01$, * $p < .05$

표 6. 5세 양육태도와 5세의 정서조절, 공감 간 회귀분석

	R^2	R^2 change	β	t
ERC부정성				
애정	.132	.132	.355	4.834***
통제	.158	.026	.162	2.212*
ERC정서조절				
애정	.153	.153	-.383	-5.277***
통제	.174	.021	-.146	-2.016*
EQ				
애정	.115	.115	-.339	-4.170***
통제	.142	.027	-.164	-2.073*

*** $p < .001$, * $p < .05$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5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5세 때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5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성, $r = .315$, $p < .01$, 정서조절, $r = -.221$, $p < .01$, 공감, $r = -.264$, $p < .01$. 특히 아동의 정서조절 및 공감과 상관이 높은 것은 애정이었다, 부정성, $r = -.375$, $p < .01$, 정서조절, $r = .386$, $p < .01$, 공감, $r = .371$, $p < .01$. 이 결과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태도가 학령전 아동의 정서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부정성, $r = -.542$, $p < .01$, 정서조절, $r = .561$, $p < .01$. 이 결과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은 타인 정서에 대해서도 공감을 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5가지 하위 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을 종속변인으로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6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과 통제 변인이 아동의 정서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부정

성, $F(2, 157) = 14.757$, $p < .01$, $R^2 = .158$, 애정, $R^2 = .132$, 통제, $R^2 = .026$, 정서조절, $F(2, 157) = 16.583$, $p < .01$, $R^2 = .174$, 애정, $R^2 = .153$, 통제, $R^2 = .021$.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과 통제 변인이 아동의 공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F(2, 138) = 11.390$, $p < .001$, $R^2 = .142$, 애정, $R^2 = .115$, 통제, $R^2 = .027$.

논 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발달은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다. 이 두 가지 사회-정서적 특성의 발달은 사회적 유능성이나 문제행동 뿐 아니라 도덕성이나 친사회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을 예측하는 아동과 부모의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5세 아동의 정서발달을 예측하는 것은 3세 아동의 언어와 자조행동이였다. 우선 5세 아동의 정서조절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3세 때 언어 표현을 잘 하는 아동은 5세에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Kopp(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opp(1989)에 따르면, 언어는 정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고 조절하는 다목적적 수단(vehicle)이다. 아동은 언어로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들에 대해 전

하고, 자신의 정서의 적절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정서들을 관리하는 방식들에 대해 듣고 생각하게 된다. 즉, 언어적으로 매개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은 어떤 단어, 행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 정서적 감정과 표현들이 사회적으로 승인되거나 금지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이처럼 언어는 정서조절을 촉진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단적 설계는 정서조절과 언어 간의 관계를 보다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동의 정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정서와 관련된 언어자극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3세 때 자조행동은 5세 때 공감을 예측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결과였다. 이것은 자율성과 공감 간의 관계(Grühn, Rebucal, Diehl, Lumley, & Labouvie-Vief, 2008)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자조행동의 특징은 자율성과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조행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 없이 티셔츠를 입는다', '감시 없이 혼자서 집을 돌아다녀도 별로 위험하지 않다', '도구를 사용하여 빵에 썬 종류를 바른다'와 같이 일상적인 활동을 혼자서 해내는 것들이었다. 이처럼 환경과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행동들을 통해 자율성이 습득된다(Erikson, 1968). 이런 자율성은 개인적인 안녕감(wellbeing)에 기여하고, 이런 심리적 안녕감은 공감과 관련이 있다(Grühn et al., 2008). Grühn 등(2008)은 공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이고, 이것은 상호작용하는 상대에 대해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자율성, 주관적인 심리적 안녕감,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관련성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어린 아동의 자조행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이것은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을 갖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자율성(예, 자조행동)이 높은

아동이 공감 능력도 높은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발달영역들 간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못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정서조절 영역 중에서 정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정성은 3세의 어떤 변인보다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정서적 변화나 강도와 같은 정서의 부정성의 변화는 아동의 다른 발달 영역들과 관련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정성은 Buss와 Plomin(1984)이 기질의 한 요소로 제안한 정서성(Emotionality)과 상당히 유사하다. 정서성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격렬하게 내는 특성으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기질은 생물학적인 기반을 둔 성격 특성으로 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상의 개인차이다(Goldsmith, Buss, & Lemery, 1997). 따라서 아동의 부정성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격 특성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서적 특성이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부정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무관심, 애정, 및 통제는 아동의 부정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정성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초기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아동 자신보다 부모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정서 구현 연구들과 Kopp 연구(1989)에 근거하여 아동의 운동발달이 정서조절이나 공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운동발달과 정서조절 및 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정서가가 있는 혹은 정서와 관련된 신체적 움직임을 대상으로 한 정서 구현에 대한 연구들(Duckworth et al., 2002; Stepper & Strack, 1993; Strack et al., 1988)과 달리, 본 연구

는 일반적인 운동발달 정도와 정서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둘 간의 관련성이 덜 긴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 움직임과 정서 간의 관계는 정서와 관련 있는 동작이나 자세에만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해석은 모방과 관련이 있다. 타인의 동작이나 표정을 모방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Meltzoff, 2005; Meltzoff & Moore, 1989). 모방은 주의나 기억과 같은 인지적 능력,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운동능력,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흥미와 의도 등 다양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술이다. 모방에서 운동능력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듯하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자폐아동의 운동능력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모방능력의 결핍이 운동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다(Zachor, Ilanit, & Itzchak, 2009). 따라서 운동능력과 정서 간의 관계는 모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아동이 보이는 운동모방의 발달과 정서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운동능력과 정서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혹은 즉시적인 경우와 장기적인 경우에 차이를 보였다. 3세 때 어머니의 무시/무관심이 5세 때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에 영향을 주는 반면, 5세 때 어머니의 애정과 통제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어머니의 애정과 통제 중에서 애정이 더 큰 설명 변인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심리적 학대의 형태로서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Cicchetti & Toth, 1995; Shipman & Zeman, 2001). ‘무관심’의 특징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

로, 아동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어머니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는 자기조절 능력을 촉진한다(Colman, Hardy, Albert, Raffaelli, & Crockett, 2006; Thompson, 1994; Tronick, 1989).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은 아동의 정서적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아동이 보이는 단서들에 대해 주목하고 알아채는 것을 의미한다. 따뜻하다는 것은 양육의 애정이 높다는 것으로 그리고 반응적이라는 것은 무관심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행동(무관심)이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행동(애정)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더 중요한 행동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는 현재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주는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미래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Calkins 등(1998)의 연구는 어머니 행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차이에 대해 확인하였다면, 본 연구는 기간에 따라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연령에 따라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3세에 비해 5세 때 부모의 애정과 통제가 더 중요한 태도일 수 있다. 발달과정에서 3세는 새로운 기술들의 습득이 권장되는 시기인 반면, 5세는 책임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즉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변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세와 5세 때 어

머니의 양육태도 간 상관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하게 상관을 보였다(애정, $r=.364$, 적대, $r=.348$, 무관심, $r=.311$, 거부, $r=.234$, 통제, $r=.326$).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반응에서 차이를 반영하는 듯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3세 때 어머니의 애정과 통제가 중요한 변인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발달에서 아동과 부모는 각각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발달의 시기에 따라 영향력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일 5세에서만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만이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아동과 부모의 변인과 그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에서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아동의 발달적 특성들이 각 시기에 반복 측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특성들 간 관련성과 양육태도와 정서발달 간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정미, 신희선 (2006a). K-CDI 아동발달검사. 서울: 특수교육
- 김정미, 신희선 (2006b). K-CDI 아동발달검사 표준화 연구. 아동학회지, 27, 39-53.
- 이성진 (2004). 학령기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수용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병성 (2002). 공감과 이타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화진 (1986). 아동의 공감발달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stington, J. W., & Gopnik, A. (1991). Theoretical explanations of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mind.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9, 7-31.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arnett, M. A., King, L. M., Howard, J. A., & Dino, G. A. (1980). Empathy in young children: Relationship to parents' empathy, affection, and emphasis on the feelings of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243-244.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s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 Developmental Disorders*, 34, 163-175.
- Bauer, J. (2005). *Warum ich fühle, was du fühlst*. Hamburg: Hoffman und Campe Verlag. 이미옥 역. (2006). 공감의 심리학: 말하지 않아도 네 마음을 어떻게 내가 느낄 수

- 있을까. 서울: 에코리브르.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and Poverty*, 7, 55-71.
- Bushnell, E. W., & Boudreau, J. P. (1993). Motor development and the mind: The potential role of motor abilities as a determinant of aspects of perceptu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006-1021.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alkins, S. D., Gill, K. L., Johnson, M. C., & Smith, C. L. (1999).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as predictors of social behavior with peers during toddlerhood. *Social Development*, 8, 310-341.
- Calkins, S. D., Smith, C. L., Gill, K. L., & Johnson, M. C. (1998). Maternal interactive style across contexts: Relations to emotional,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gulation during toddlerhood. *Social Development*, 7, 350-369.
- Campos, J. J., Mumme, D. L., Kermoian, R., & Campos, R. G.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Serial No. 240), 284-304.
- Caspi, A.,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qualities at age 3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6, 486-498.
- Caspi, A., Harrington, H., Milne, B., Amell, J. W., Theodore, R. F., & Moffitt, T. E. (2003). Children's behavioral styles at age 3 are linked to their adult personality traits at age 26. *Journal of Personality*, 71, 495-513.
- Chapman, E., Baron-Cohen, S., Auyeung, B., Knickmeyer, R., Taylor, K., & Hackett, G. (2006). Foetal testosterone and empathy: Evidence from the Empathy Quotient(EQ) and the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 *Social Neuroscience*, 1, 135-148.
- Cicchetti, D., & Toth, S. L. (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1-564.
- Colman, R. A., Hardy, S. A., Albert, M., Raffaelli, M., & Crockett, L. (2006). Early predictors of self-regulation in middle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5, 421-437.
- Denham, S. A.,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 Auerbach-Major, S.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 238-256.
- Duckworth, K. L., Bargh, J. A., Garcia, M., & Chaiken, S. (2002). The automatic evaluation of novel stimuli. *Psychological Science*, 13, 513-519.
- Eisenberg, N., Cumberland, A. L., Spinrad, T.

- L., Fabes, R., Shepard, S. A., & Reiser, M.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 1112-1134.
- Eisenberg, N., & Fabes, R. A. (1991).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A multimethod,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Clark, M.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34-61) Sage, Newbury Park, CA.
- Eisenberg, N., Sadovsky, A., & Spinrad, T. (2005). Associations of emotion-related regulation with language skills, emotion knowledge, and academic outcome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09*, 109-11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nson, L., Dale, P. S., Reznick, L., Bates, E., Thal, D., & Pethick, S. J. (1994). Variability in early communicative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5, i-185.
- Friend, M., & Davis, T. L. (1993).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physical and affective domain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07-914.
- Fujiki, M., Brinton, B., & Clarke, D. (2002).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3*, 102-111.
- Gnepp, J., & Hess, D.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 Goldsmith, H. H., Buss, K. A., & Lemery, K. S. (1997). Toddler and childhood temperament: Expanded content, stronger genetic evidence, new evidence for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891-905.
- Granziano, P. A., Reavis, R. D., Keane, S. P., & Calkins, S. D. (2007).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s early academic succes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5*, 3-19.
- Grühn, D., Rebucal, K., Diehl, M., Lumley, M., & Labouvie-Vief, G. (2008). Empathy across the adult lifespan: Longitudinal and experience sampling findings. *Emotion, 8*, 753-765.
- Gumora, G., & Arsenio, W. F. (2002).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chool performance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 395-413.
- Harris, P. L., & Gross, D.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real and apparent emotion. In J. W. Astington, P. L. Harris, & D. R. Olson (Eds.), *Developing theories of mind* (pp. 295-3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ris, P. L., Johnson, C. N., Hutton, D., Andrews, G., & Cook, T. (1989). Young children's theory of mind and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3*, 379-400.
-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Paul Brookes Publishing Co.
- Hill, E. L. (2001). Non-specific nature of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regard to concomitant motor impair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 36*, 149-171.
- Hoffman, M. L. (2001).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wse, R. B., Calkins, S. D., Anastopoulos, A. D., & Keane, S. P., & Shelton, T. L. (2003). Regulatory contributors to children's kindergarten achievement.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4*, 101-119.
- Hughes, C., & Dunn, J. (1998). Understanding mind and emotion: Longitudinal associations with mental-state talk between young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026-1037.
- Ireton, H. (1992). *Child Development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Behavior Science System.
- Keane, S. P., & Calkins, S. D. (2004). Predicting kindergarten peer social status from toddler and preschooler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 409-423.
- Keenan, K. (2000). Emotional dysregulation as a risk factor for child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7*, 418-434.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Malatesta, C., & Haviland, J. (1982). Learning display rule: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 991-1003.
- Meltzoff, A. N. (2005). Imitation and other minds: The "Like Me" hypothesis. In S. Hurley and N. Chater (Eds.), *Perspectives on Imitation: From Neuroscience to Social Science* (Vol. 2, pp. 55-77). Cambridge, MA: MIT Press.
- Meltzoff, A. N., & Moore, M. K. (1989). Imitation in newborn infants: Exploring the range of gestures imitated 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954-962.
- Niedenthal, P. M. (2007). Embodying emotion. *Science, 316*, 1002-1005.
- Piaget, J. (1953). *The origin of the intelligence in the child*. London: Routledge.
- Piek, J. P., Dawson, L., Smith, L. M., & Gasson, N. (2008). The role of early fine and gross motor development on later motor and cognitive ability. *Human Movement Science, 27*, 668-681.
- Ridgeway, D., Waters, E., & Kuczaj, S. A. (1985). Acquisition of emotion-descriptive language: Receptive and productive vocabulary norms for age 18 months to 6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01-908.
- Rohner, R. P. (2005).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Test

- manual. In R. P. Rohner & A. Khaleque (Eds.),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 pp. 43-106).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Rydell, A. M., Berlin, L., & Bohlin, G. (2003).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adaptation among 5- to 8-year old children. *Emotion, 3*, 30-47.
- Saarni, C. (1979).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24-429.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Shaffer, D. R., & Kipp, K. (2007).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Belmont: Wadsworth.
-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906-916.
- Shipman, K. L., & Zeman, J. (2001).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dyads: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317-336.
- Stansbury, K., & Zimmermann, L. K. (1999). Relations among child language skills, maternal socia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and child behavioral problem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0*, 121-142.
- Stepper, S., & Strack, F. (1993). Proprioceptive determinants of emotional and nonemotional feel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11-220.
- Strack, F., Martin, L. L., & Stepper, S. (1988). Inhibiting and facilitating conditions of the human smile: A nonobtrusive test of the facial feedback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68-777
- Tom, G., Pettersen, P., Lau, T., Burton, T., & Cook, J. (1991). The role of overt head movement in the formation of affect.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2*, 281-289.
- Thompson, R. A. (1987). Empathy and emotional understanding: The early development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119-14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Serial No. 240), 25-52.
- Tronick, E. Z. (1989). Emotion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19.
- Wijnroks, L., & van Veldhoven, N.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postural control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preterm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6*, 14-26.

Zachor, D. A., Ilanit, T., & Itzhak, E. B. (2009). Autism severity and motor abilities correlates of imitation situations in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 doi:10.1016/j.rasd.2009.10.016 에 게시.

Zahn-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 (1979).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1차 원고 접수: 2010. 01. 12

수정 원고 접수: 2010. 02. 10

최종 게재 결정: 2010. 02. 11

The Predictors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at Age 5: A Longitudinal Approach

Ji-Yeon Lee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mjoo Kwa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mothers and children contribute to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in early childhood. A total of 166 mothers and their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parenting attitude(PARQ) and child's development (K-CDI) at age 3,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PARQ) and child's emotional regulation(ERC) and empathy(EQ-C) at age 5 were measur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attitude had different short- or long-term effects on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It was mother's indifference at age 3 and mother's warmth and control at age 5 that predicted child's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at age 5. Second, child's language ability at age 3 predicted child's emotional regulation at age 5, and child's self-help ability at age 3 predicted child's empathy at age 5. The study explored the interrelatedness of developmental domains and the effects of parenting 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Keywords: emotional regulation, empathy, parenting attitude, language, self-help